

세계 내 타자의 밀도와 저항의 방식

- 청소년소설 『원통 안의 소녀』와 「B의 세상」을 중심으로

박 성 애*

차 례

- | | |
|-------------------------|------------------------------|
| 1. 서론 | 3. 권력주체의 공간에 타자성을 드러내는 방식 |
| 2. 권력주체의 공간과 타자적 존재의 밀도 | 4. 결론: 타자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윤리적 글쓰기 |

국문초록

권력주체가 전유하는 공간에서 타자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타자들의 밀도는 낮아진다. 타자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주체의 공간이 되어 주체의 권력으로 머물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의미 있는 공적 언어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주체의 공간에 타자성은 드러나기 힘들다. 「B의 세상」과 『원통 안의 소녀』는 타자적 청소년들이 권력의 공간에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어떠한 밀도로 존재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 청소년 인물들은 주체의 공간에서 주체의 지식으로 해석되는 존재로, 그들의 타자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에 「B

*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의 세상」은 공적 발화를 시도하고, 공적인 말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타자들의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타자들의 밀도를 높여가고자 한다. 그리고 『원통 안의 소녀』는 “사귀”을 통한 윤리적 주체되기를 통해 그들의 타자성이 세계에 나타날 수 있고 타자를 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소설은 성인작가가 청소년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청소년 세계의 진실에 닿아있는 문학이어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타자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에 타자의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개자로서 이 세계의 공적 목소리를 소유한 성인작가의 시선과 ‘말’이 필요하다. 목소리 없는 타자가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포착하는 주체의 시선과 그것을 전달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통합되지 않는 타자의 말을 작가는 주체로서 대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작가는 권력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타자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사회에서 소통되는 공적인 말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우리 세계 청소년 타자에 대해 성인작가주체는 타자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그림자 없이 명확한 공적인 말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타자들을 마주한 성인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윤리적 주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소설, 권력, 권력주체, 타자, 밀도, 관계, 윤리적 주체

1. 서론

청소년소설은 성인작가와 청소년독자의 관계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청소년소설이 언제나 우리 사회 성인주체의 청소년타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소설은 타자에게 전달하는

주체의 언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타자의 말을 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최근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의 존재 양상과 그들이 권력주체의 세계에서 타자성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으로 우리 사회의 타자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을 중심인물로 하는 청소년소설은 권력이 중심이 된 세계와 타자(타자성)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적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타자적 존재의 밀도와 그들이 한 주체로서의 질량을 얻어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를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타자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성인작가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품 밖 타자인 청소년독자에 대한 성인작가의 태도를 함께 들여다 볼 것이다.

권력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권력주체는 타자를 자신의 목소리가 통용되는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서 권력의 범위를 넓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²⁾ 사회적 타자인 청소년이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주체인 성인의 목소리가 강한 세계에서 타자성은 드러나기 힘든데, 권력주체의 목소리에 동의하여 주체의 공간으로 머물거나 타자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점점 더 그 존재가 희미해진다. 이러한 공간에서 타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공간 내에서 타자성을 드러내는 타자의 밀도가 낮기에 그들은 주체의 지식으로 환원되곤 한다.³⁾ 이러한 세계에서는 주체의 동일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1) 청소년소설의 중심인물은 대개 청소년이므로, 우선 미성년이라는 타자의 자리에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타자적 위치에 있는 존재, 즉 빈곤이나 따돌림을 겪는 인물,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등등, 사회적 타자로 그려지는 청소년인물은 '미성년'이자 '사회적 타자'로 이중의 타자라 볼 수 있다.

2)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21-24쪽.

권력은 권력주체가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게"하면서 타자를 주체의 공간으로 포섭하여, 타자 속에서 "자아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권력과 공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공간을 읽고자 하므로, 공간은 권력주체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에 밀도가 낮은 타자의 말은 다만 “응성거림”⁴⁾이 될 뿐 공적으로 드러날 수 없고 타자적 존재는 욕망하는 주체로 그 본연의 질량을 세계에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타자는 그 세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타자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즉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방법이 청소년소설 안에서도 사유될 필요가 있다.

성인작가가 청소년독자를 일차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소설에서 우리 사회의 타자인 청소년의 존재 양상과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무척 중요하다. 잘 들리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성인작가가 길어내어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타자적 존재에 시선을 둔 작품을 찾아, 작품 속에 드러나는 타자의 존재 양상과 타자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공간의 권력적 동일성 아래, 타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 공간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청소년인물을 중심으로 타자의 양상과 그들의 저항력을 그려낸 최근의 청소년소설, 김초엽의 『원통 안의 소녀』와 최상희의 「B의 세상」을 분석하고자 한다.⁵⁾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세계는 크게 세 개의 공간- 가정과 학교, 그리고

3) 엠마누엘 레비나스,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75쪽.

레비나스는 “앎이란 항상 생각과 생각하는 것 사이를 갖다 맞추는 것이다. 결국 앎 속에는 자기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타자를 대상화하는 것은 결국 타자를 자신의 지식(앎)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식(앎)을 통해서만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주체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타자는 그 타자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4) 한병철, 앞의 책, 7쪽.

5) 김초엽, 『원통 안의 소녀』, 창비, 2019.

최상희, 「B의 세상」, 『B의 세상』, 문학동네, 2019. (앞으로 본문 인용 시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한다.)

두 작품은 출간되면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타자의 존재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그 공간에 균열을 내고 타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가의 개성적인 방법을 담고 있기에 두 작품은 주목을 요한다.

그 사이의 공간(사회)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공적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학교와 가정 사이의 공간인 사회는 청소년들이 전체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다. 즉, 사적 세계인 가정을 벗어나서 청소년은 공적 세계를 경험하고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은 주로 입시 등과 관련하여 획일화된 형태, 곧 주체의 지식으로 해석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작 사회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원통 안의 소녀』와 「B의 세상」을 통해 학교와 사회, 두 공간에서 타자가 존재하는 양상을 공간 속 그들의 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존재를 세계에 드러내어 우리 사회에서 타자적 존재의 밀도를 높여가는 방식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권력주체의 공간과 타자적 존재의 밀도

「B의 세상」과 『원통 안의 소녀』의 중심인물은 청소년이다. 두 작품 속 청소년인물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자가 된 존재들이다. 「B의 세상」의 27번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으로, 몇몇 선생들에게 성희롱과 불유쾌한 접촉 등의 성폭력을 당해왔다. 27번뿐만 아니라 학교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몇몇 남자 선생들의 폭력적 언사와 행동을 겪었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러 선생들의 그런 언행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공론화하기는 힘들었는데, 그것은 선생들이 입시에서 발휘하는 힘 때문이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의 말은 타자인 서로에게만 들리는 언어로 “뭉여지거나 매개 중재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 즉 “응

성거림”에 머문다.⁶⁾

“너도……알았지.”

“모두 알았지.”

“너도……”

“그래, 나도 당했지.”

“싫었지.”

“싫었지.”

“정말 싫었어.”⁷⁾

A의 폭력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에 대해 여학생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자들의 말은 서로의 고통을 확인하는, 서로에게만 통용되는 언어일 뿐 A와 학교 공간의 권력자들과 피해를 입지 않은 남학생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말이다.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말’이라는 장치를 통해 ‘행위’로 만들지 못하면서 이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주체로 이 세계에 나타나지 못한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A의 입장만이 공식적인 ‘말’로 선포된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교무실에 모인 교사들 중에 A는 없었다. 합리적으로다가, 예, 또 좋게 좋게, 원만한 방향으로다가 해결해 보자는 교감의 말에 교사들은 일단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별난 애들도 많아서 선생이 괜한 오해 사는 일도 있고,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예요. 실수, 다들 하고 살잖아요. 예, 또 A교사로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책임져야 할 식구가 있어요. 딸이 고등학생이고 아들이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교감의 말에 교사들은 생각이 많은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 눈이 마주치면 그저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 뿐이었다. 동료를 돕지 못할망정, 우리가 꼭 밥줄을 끊어야 합니까?

6) 한병철, 위의 책, 7쪽.

7) 『B의 세상』, 91쪽.

교감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으로 썰기를 박았다.⁸⁾

누군가 학교 게시판에 B라는 이름으로 A선생에 대한 고발문을 올리자 학교는 대책 회의를 연다. 교감은 A선생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책임져야 할 식구가 있”다는 이유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향”의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교감은 A선생을 대신하면서, 학교를 A의 말로 채운다. 이것은 이 공간에서 “합리적” 생각과 행동으로 이야기 된다.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 이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마저 이 말과 생각, 입장을 받아들인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는 온통 폭력의 주체를 옹호하는 ‘말’들로 가득차게 된다. 교감을 비롯한 남자 선생님들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학생들까지 대부분 권력주체의 말을, 곧 주체의 입장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주체가 “타자 속에서 자신으로 회귀”⁹⁾하는 권력의 속성에 의해 학교 공간은 온통 A의 말, 즉 ‘타자에 의해 발화된’ 주체의 말로 채워진다.

고발문의 내용 중 ‘살 좀 빼라. 교실 무너지겠다’라는 이야기를 19번이 들은 건 지난주였다. 선생님의 말에 반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웃어 댔고 19번은 그날 점심을 깨작뎠으며 저녁은 굶었다. 반 학생 스물일곱 명 중 19번보다 뚱뚱한 학생도 있었지만 그들은 외모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받은 바 없다. 19번보다 더 뚱뚱한 건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¹⁰⁾

폭력을 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젊은(어린) ‘여성’이라는 점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행해져왔다. 같은 학생이라도 남학생들은 A교사와 몇몇 선생들의 관점에서 여학생들 대상화하는 데에 동참할 뿐

8) 『B의 세상』, 87-88쪽.

9) 위의 책, 22쪽.

“권력은 권력자가 타자 속에서 자신으로 회귀할 수 있게”하는 속성이 있다.

10) 『B의 세상』, 75-76쪽.

같은 피해자가 되지는 않는다. 남학생은 선생들의 시선으로 해당 여학생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웃는다. 이러한 일은 젊은 여교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교감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으로 ‘1학년 4반 담임’에게 A교사의 성폭력에 대해 합구할 것을 중용한다. 이에 “이래선 안 되죠.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1학년 4반 담임은 꼭 참고 삼”¹¹⁾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교감의 압력에 의해 A의 행위에 대응하는 행위로서의 ‘말’을 발화하지 못한 여선생은 여학생들과 같이 타자가 된다.¹²⁾ 이처럼 이 공간은 젊은(어린) 여성이라는 타자에 대해 주체의 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인 것이다.

A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A들이 남아있었다. B의 흔적은 애써, 지워져 갔다. 교실에는 몇몇 B들이 희미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고 몇 명의 B는 투명해져 기척만 겨우 느껴졌으며 그중 사라지고 없어진 B도

11) 「B의 세상」, 88쪽.

‘1학년 4반 담임’의 모습은 우리 사회 일하는 엄마들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침에 미열이 있는데도 유치원에 보낸” 아이에 대한 부채감으로 마음이 급한 선생을 붙잡고 교감은 A교사 사건을 얘기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에 교통체증에 걸린 여교사는 더욱 불안해진다. 게다가 교감의 말에 수궁할 수 없음에도 “인내심”을 쥐어짜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억지로 묵인해야 하는 상황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에 대한 부채감을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작가는 또한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밀도가 낮아지는 존재는 비단 여학생들만이 아님을 말한다. ‘1학년 4반 담임’은 “잘했어, 참길 잘한 거야”라고 중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어찌지 흐릿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이 공간의 권력주체에게 자발적으로 동의한 인물들은 권력주체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들은 낮아진 밀도로 그 존재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12) 한병철, 앞의 책, 22-23쪽.

“권력은 권력자에게 더 넓은 자아의 공간을 마련”(22쪽)해 주기 때문에 학교 공간은 A의 말로 가득 차게 된다. 또한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며 커뮤니케이션이 특정한 방향으로 원활히 흘러가게”(23쪽)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학교 공간에서 B의 말은 A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으며, 오직 A의 말만이 B에게로 흘러오게 된다.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는 거의 없었다. **세상의 반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있었다.¹³⁾ (강조는 인용자)

입시에서 A가 발휘하는 ‘힘’에 의해 학교는 A의 언행을 문제 삼지 않고, B(피해자)에 속하는 여학생들도 자발적으로 A의 목소리를 발화하는 A의 공간이 된다.¹⁴⁾ 이러한 공간에서 타자의 밀도는 서서히 낮아져간다. 이때 용기를 내 A에 대한 고발문을 썼던 27번은 첫 고발문이 유아무야 처리되자,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두 번째 고발문을 게시판에 올린다. 이 때문에 A는 정직 된다. 하지만, A와 같은 권력주체는 여전히 학교 공간, 입시라는 시스템에 남아있다. 이들은 잠깐 흔들렸던 권력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B들을 권력 주체의 ‘말과 행동’으로 포섭하여, 주체의 말을 되풀이하게 하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B들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A의 권력적 행위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B는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다, A의 시스템과 권력을 받아들인 B들은 A의 권력공간으로 존재하기에 학교 공간에서 타자의 밀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타자들은 “희미”해지고 “투명”해질 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적으로 보면 학교 구성원의 절반에 이르는 여성타자들이지만, 그

13) 『B의 세상』, 92-93쪽.

14)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울었는데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지 자꾸 헛갈렸다. A교사 때문인 것도 같고 같은 반 학생들 때문인 것도 같다가, 아무래도 그 때문이지 싶었다.

“다 B 때문이야. B 때문에, B가 잘못된 거야.

흐느끼면서 26번은 창백해졌다. 얼어진 것도 같고 조금 흐릿해진 것도 같았다.”

- 『B의 세상』 89-90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친구들에 의해 고발문을 쓴 B라고 지목된 26번은 억울한 감정이 드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진 원인으로 B를 지목한다.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를 원망하고,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이 공간의 권력주체에게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A의 생각을 드러내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26번은 “흐릿”해지는데, 그의 타자성은 사라지고 그는 A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권력에 의해 세계 속에서 밀도가 낮아지는, 그리하여 사라지는 존재들은 『원통 안의 소녀』에도 등장한다. 『원통 안의 소녀』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에어로이드를 정기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도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기상도 완전히 통제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에어로이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두에게 완벽한 도시는 이 타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힘겨운 공간이 된다. 중심인물인 지유는 에어로이드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이다. 매체를 통해 이 사연이 알려지자, 그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은 지유에게 에어로이드를 막는 원통(프로텍터)을 만들어 기부한다. 지유는 맨몸으로 거리를 다닐 수 없기에 에어로이드를 막아주는 원통 안에서만 도시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지유는 밖에 나갈 때마다 ‘원통 안의 소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다. 이 원통에 의해 지유는 그의 타자적 위치를 언제나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주체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도시의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멀리 있었다. 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햇볕을 머금은, 물기 어린,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곳곳이 반짝이며 빛나는……그러나 지유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도시. 평생을 이곳에 살았지만 지유는 여전히 이곳의 여행자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유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 노아는 늘 도시의 사람들과 도시의 일들을 지켜보았지만 그 장면 안에 스며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노아 역시 이 도시를 스쳐가는 여행자처럼 느껴졌고 지유는 그 목소리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¹⁵⁾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도시이지만, 지유는 이상반응이라는 타

15) 『원통 안의 소녀』, 52쪽.

자성에 의해 이곳에 섞여들 수가 없다. 지유에게 이 도시와 도시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멀리”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지유는 원통 없이 존재할 수 없기에 도시의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으로 포착될 뿐 그들과 관계맺지 않기 때문이다. 원통 안에 있기 때문에 지유는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보여지지만 지유는 그들과 주체와 주체로 접촉할 수는 없다. 친절하지만 멀리서 보내는 동정의 시선은 “사قم”¹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프로텍터라는 원통 안에 갇혀 지유는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대상, 동정의 대상이자 소통에서도 소외된 대상이 될 뿐이다. 이에 지유는 스스로를 이 도시의 “여행자”로 느끼게 된다. 도시의 사람들과 섞여들지 못함, 멀리 있음, 사قم을 갖지 못함이라는 지유의 특성은 노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 도시에 없어야 하는 사람이야.”

노아는 의료용 클론이었다. 정확히는, 생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클론이었다.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클론들은 뇌를 발달시키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¹⁷⁾

지유의 부모님도 지유가 어릴 때 의료용 클론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유도 클론이라는 게 정말로 인형에 가까운 무엇인 줄 알았다. 절대로 마음이나 감정을 가질 리가 없다고 병원 측에서도 거듭 강조했으니까. 하지만 ‘절대로’라는 건 애초부터 없었다. 지유 자신조차도 일종의 부작용이지 않던가.¹⁸⁾

16) 엠마누엘 레비나스, 앞의 책, 75-78쪽.

레비나스는 “사قم이란 앎을 통하지 않고 있음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타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그를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사람끼리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99쪽) 있는 것이 “사قم”이다. 그리고 이 “사قم” 관계에 진입할 때 타자에 대한 “윤리”가 발생한다.

17) 『원통 안의 소녀』, 59-60쪽.

18) 『원통 안의 소녀』, 63쪽.

의뢰인의 필요에 의해 제작되는 의료용 클론은 주문한 사람과 신체만 같게 만들어 장기를 기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가끔 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뇌가 발달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개체가 생기기도 한다. 오류로 탄생한 ‘생각할 수 있는 클론’은 임의로 폐기할 수도, 인간으로 인정하고 사회에 섞여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작업 오류에 의해 탄생한 클론인 노아는 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실제로는 있는’ 인간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면서, 뇌만 컴퓨터에 연결된 채로 도시의 에어로이드 시스템과 기상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노아는 “없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인큐베이터에 갇힌 채 가상 세계에 접속되어 정신으로만 살아간다. 몸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수 없기에 노아는 이 도시에서 있으나 없는, 존재하지만 희미한 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유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 모습이 완전히 노출됨으로써,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숨겨짐으로써 이 도시의 주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 인물은 완벽한 듯 보이는 이 도시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존재로 도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타자성이다. 지유와 노아같은 존재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시는 완벽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이 도시의 결합과 이 도시가 타자성을 억압하는 방식이 가려질 수 있으며, 그들끼리 완벽한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는 제거된다. 권력주체와 두 인물의 관계는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적 주체와 일방의 지식으로 포착되는 대상의 관계이다.

이렇게 「B의 세상」과 『원통 안의 소녀』는 권력주체가 강한 공간(중심 세계)에 타자가 잘 드러날 수 없는 이유와 그들이 숨겨지는 과정을 보여준다.¹⁹⁾ 이들은 ‘말’을 빼앗기고 목소리 없는 존재가 되어 주체의 목소리

19) 주지하듯이 청소년소설은 숨겨진 청소년들의 삶과 목소리를 길어 올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작가들은 이들의 목소리가 숨겨지는 과정을 청소년독자와 성인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지만 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타자의 목소리가 삼켜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낸다. 「B의 세상」은

가 가득한 세계의 ‘여행자’로 남는다. B의 자리에, 혹은 여행자의 자리에 있는 타자는 ‘존재하지만, 주체로서 세계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의 목소리는 파편화되어 흩어진다. 이에 누군가는 흩어진 그들의 목소리를 묶어 하나의 공적 언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타자의 “응성거림”은 어떻게 ‘공적 목소리’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권력주체의 공간에 타자성을 드러내는 방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소리의 부재로 인해 타자적 존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질량을 갖지 못하고, 그 밀도가 낮아져 간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적 존재는 어떻게 그의 공간을 회복하고, 하나의 주체로서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B의 세상』은 공적 언어의 획득을 그 시작 지점에 놓는다.

학교 홈페이지에 고발문이 올라왔다. 고발문이라는 단어는 생소했으나 글의 제목 자리에 ‘고발문’이라고 적혀 있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으니 일단은, 고발문임이 틀림없었다. 고발문에 등장한 인물은 A와 B였다. A는 가해자이고 B는 학생이었다.²⁰⁾

B들 중 하나인 27번은 A선생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해왔음을 공적 공간에서 ‘말’하고자 한다. 공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넘으로써 이 세계에 B들이 ‘있음’, 존재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집중하고, 『원통 안의 소녀』는 청소년인물들을 내세워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의 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소설이 지닌 장르적 특성, 즉 성인작가-청소년독자(주체-타자)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20) 『B의 세상』, 74쪽.

다. B의 고발문은 또 다른 B들의 언어를 대표하고 있었기에 여러 여학생들은 고발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느낀다.²¹⁾ 이렇게 고발문에 의해 공적 언어로 B의 존재가 주체의 세계에 드러난 순간, 여러 B들은 A의 폭력에 의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그러한 느낌은 고립된 개체로서 자신만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B들과 함께 공통으로 느낀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B들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27번은 이 고발문을 통해 B의 경험이 ‘언어화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이 경험한 것은 A의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주지시킨다.

그러나 학교는 “A와 B라고 표시된 익명의 존재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B의 존재는 “희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B의 ‘말’은 “뚜렷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언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공표한다.²²⁾ 세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B를 희미하게 만드는 일, 그의 밀도를 낮추는 일은 이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진행된다. 이에 27번은 다시 한 번 고발문을 작성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B들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한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였다. 역시 제목이 ‘고발문’이었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가해자 교사 A를 피해자 학생 B가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고발문 맨 끝에 A가 3학년 진학 담당이고 수학 교사

21) 『B의 세상』, 75-76쪽.

“2학년 1반 19번은 고발문을 수차례 읽어 보았다. 그러다 이건 나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 하지만 21번 역시 고발문을 쓴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도 꼭 자기가 쓴 것만 같았다.”

22) 『B의 세상』, 85쪽.

“뚜렷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억측은 교사와 학생 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칠 뿐이므로 그로 인한 파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임을 밝힌 것이다. (...)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는 대신 B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A의 요구를 B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A는 B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²³⁾

27번은 두 번째 고발문에서 A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27번이 그동안 이런 일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A는 B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85쪽)이라고 명시한다. B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이 세계에서 희미해져갔던 것은 A의 권력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에 27번은 이 세계에서 B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고발문의 형식을 통해 공적 언어를 발화하려고 시도한다. 27번은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오픈되는 게시판을 이용해, B들의 말이 단지 “웅성거림”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고발문은 실제적으로 B의 행위가 되어 A교사는 정직처분을 받는다.

“그래도 좀 참지 그랬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꼭 그래야 했어?”
희뻘해진 얼굴로 23번이 말했다. 27번은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캔을 주머니 속에서 꼭 쥐 채 23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A같은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 너도 알잖아, 주운아.”

푸슬푸슬 부서져 내리는 목소리로 23번이 말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걸까.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참고,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세상은 누군가가 참고, 참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된 걸까. 그런 세상은 살고 싶지 않다고, 주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이 어째 아득해 보였다. 매일매일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곳이 문득 낯설고 두렵게 보였다. 하지만 그곳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임을 주운은 알았다.

“잘 안 보인다. 눈이 오려나.”

금방이라도 뭉 쏟아낼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렸다. 주운의 말에 23번

23) 『B의 세상』, 85쪽.

도 창밖을 내다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운은 말하면서 23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말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운은 흐릿하고 싸늘한 친구의 손을, 마치 놓으면 영영 사라지기라고 할 것처럼 힘을 주어 꼭 잡았다. 사라지지 않고 싶다고 너와 나는 사라질 수 없다고. 우리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운은 손을 맞잡은 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²⁴⁾

그러나 B가 잠시 공적 언어를 통해 주체적 행위으로써 이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냈지만, A들의 권력이 약해지거나 그들의 권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3번의 말처럼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듯 보인다. “A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A들이 남아 있었”(92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27번은 “주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작가는 다른 B들을 19번, 26번, 23번 등, 번호로만 호명하지만, 두 번째 고발문 이후, 공적 언어를 통해 ‘행위’를 한 27번에게 “주운”이라는 이름을 돌려준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갖는 존재는 오직 고발문을 쓴 주운뿐이다. A 혹은 A의 경계에 있는 인물들은 단지 권력이 있는 존재, 이 세계에 드러나는 존재인 A로만 명명되며, B들은 또한 이 세계에 있으나 없는, 희미한 존재로 번호로만 나타난다. 이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27번만이 이름 있는 주체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단지 B가 아닌,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타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 타자들은 이 세계에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다. 주운처럼 이름을 갖고 “너와 나는 사라질 수 없다”라고 다짐하는 주체적인 인물에 의해 타자의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운은 힘 있게 친구의 손을 잡는다. 23번이 주운의 호명에 응답하여, 주운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B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통합되어 권력을 갖게 된다면,

24) 『B의 세상』, 91-92쪽.

“권력이 통솔하는 목소리를 통해 음성거림을 밝히”²⁵⁾고 의미 있는 말을 타자의 목소리로 이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말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라는 주운의 말은 타자의 공간을 권력 주체의 공간에 열고자 하는, 그들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함께 하는 타자를 향한 초대이다. 이렇게 「B의 세상」에서는 공적 언어를 획득하려는 시도와 이를 권력의 언어로 만드는 타자의 연대를, 타자의 소멸을 막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B의 세상」이 A와 B로 나뉜 세계, 즉 ‘말’을 가진 세계와 그렇지 못한 세계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타자들의 밀도가 낮아져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청소년타자가 주체적 행위자로 세계에 드러나도록 그들의 ‘말’이 보여지는 일에 좀 더 집중했다면, 『원통 안의 소녀』는 타자들의 “사귀”에 더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주체와 타자의 관계 방식과 소통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사귀’를 보여줌으로써 타자(성)의 존재방식으로서 관계맺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원통 안에 있기에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스피커를 통해야 하는 지유와 인큐베이터에 갇힌 채 뇌만 세계에 연결된 상태로 역시 스피커를 통한 가상의 목소리로 말하고 듣는 노아는 장치를 통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타자들기에 이들의 말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직접 들리지 않는다. 이들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말’은 타자의 영역-원통, 인큐베이터-에 갇혀 도시의 주체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스피커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타자들끼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소통은 완벽한 도시에 보여지는 대상, 혹은 처리의 대상이었던 두 존재를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서로에게 나타나게 하고, 두 인물을 “사귀”으로 진입하게 한다.

노아는 자신의 진짜 몸을 되찾고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 했다. 이미

25) 한병철, 앞의 책, 8쪽.

몇 번 시도한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노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인큐베이터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

지유는 하필 그날 노아가 탈출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물었다.

“네가 날 궁금해 하길래, 정말로 밖에 나가 보고 싶었어. 나도 너랑 산책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네가 몇 번이나 물었잖아. 네 정체가 뭐냐고. 그래서……너처럼 원통 안에 갇힌 진짜 나를 생각하게 됐어.”²⁶⁾

노아는 그의 삶에서 처음 만난 또 다른 타자적 존재인 지유와 소통하면서 “사람끼리 서로 마주하는”²⁷⁾ 경험을 하게 된다.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주체로 설 수 있게 된 노아는 지유의 질문에 그의 온 존재(신체와 정신이 함께)로 답하고 싶어진다. 지유의 물음에 답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그가 특정한 공간, 배제된 공간에 갇혀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를 찾고, 그 몸으로 지유를 만나, 이 세계를 산책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한다. 이러한 노아의 욕망과 지유의 질문은, 지유를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시선과 그들에게 자신의 타자성을 설명할 것을 포기한 지유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 지유는 자신을 대상으로 포착하는 도시인들에 대해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그들의 지식 안에서 해석된 대로, 불쌍한 소녀의 모습으로 행동해 나간다. 관계를 단념한 것이다. 원통 밖의 사람들은 원통 안의 지유를 대상화하고, 지유는 원통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²⁸⁾ 관계를 단념한 채 지유는 다만, 그

26) 『원통 안의 소녀』, 62-65쪽.

27) 임마누엘 레비나스, 앞의 책, 99쪽.

28) 위의 책, 101쪽.

레비나스는 “공동요소가 있어야 객관화된 사회가 가능하지만 거기서 사람은 사물처럼 되고 사물처럼 개별화된다”(101쪽)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역자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서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관계 유지를 하는 셈”이라고 서술하면서 “주체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주체가 생긴다”(101쪽, 각주 3번)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원통 밖의 사람들과 지유는 완전한 도시에 대한 “공통된 요소”를 소유할 수 없기에 “관계”를

들의 지식 속 “원통 안의 소녀”의 이미지를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에 반해 지유와 노아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체로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의 주체성을 확인한다. ‘지유와 노아’, ‘지유와 도시인’의 관계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향의 시선이나 말은 타자적 존재의 목소리를 제거하지만 “관계”는 “주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타자적 존재를 온전히 세계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한다.²⁹⁾

이러한 노아와 지유는 주체와 주체로 마주서게 되고, 지유는 인큐베이터에 갇힌 노아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참여하기로 한다. 이로써 관계를 통한 타자의 발견, 그리고 윤리적 주체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⁰⁾ 지유는 탈출을 계획하고 도와달라는 노아의 부탁에, 먼저 ‘너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지유가 윤리적 주체로서 노아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통 밖의 사람들이 지유나 노아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들이 지닌 지식을 통해 일방향의 언설을 보내는 것과 달리, 관계 속에서 지유와 노아는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함으로써, 즉 소통함으로써 타자를 지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질문을 앞에 두고 노아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그가 간혀있는 배제된 영역에 대해 지유에게 ‘말’한다. 그리고, 노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자신을 존재의 상태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도시 밖의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유에게 도와달라고 말한다. 지유는 노아를 돕는 행위를 통해 이 완벽한 도시의 문법을 거부하고, 이 세계에 타자적 존재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사유에서 “주체”는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기에 공통된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맺음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29) 위의 책, 84쪽.

“사실상 관계란, 타자성을 없애 중립화하지 않고 타자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30) 박유정, 「사랑이란?-바타이유와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0권 6호(통권 56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569쪽.

저자는 “이렇게 타자를 만나고 그와 관계 맺으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립 속에서 진정한 주체, 즉 윤리적 주체가 탄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인 노아가 질량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행위함으로써 윤리적 주체가 된다.

비가 오는 시간에는 에어로이드의 농도가 낮아져 지유는 원통 없이 도시 공간에 머물 수 있다. 노아는 자신을 위해 주체적 행동을 해준 지유를 위해 기상을 통제하여 갑자기 도시에 비가 내리도록 만든다. 기상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도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비에 도시의 사람들은 불평을 토해내지만, 이제 막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난 노아와 원통 없이 거리를 걷게 된 지유는 잠깐이나마 ‘완벽함’이 무너진 이 도시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타자성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도시 공간의 완벽함이란, 타자적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만 유지되는 동일성이다. 따라서 타자의 출현은 이 시공간의 완벽함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된다. 타자들의 출현을 엄격한 통제와 객체화(타자의 대상화)를 통해 제어해 왔던 도시의 권력은 통제를 벗어난 신체와 동정의 시선으로 대상화되던 존재의 주체적 걸음을 통해 잠깐이나마 그 틈을 드러내며 무화된다. 물론 탈출한 노아와 달리 지유는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유는 “이제 도시 밖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³¹⁾게 된다. 이 공간 밖의 공간, 타자성이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³²⁾ 이처럼 작가는 타자들끼리의 “사킴”을 통해 권력의 자장에 틈을 만들고, 그 사건을 통해 타자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보인다.

31) 『원통 안의 소녀』, 77쪽.

32) 최배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 청소년 과학소설의 디스토피아 연구」, 『대중서사연구』 53, 대중서사학회, 2020, 122쪽.

저자는 『원통 안의 소녀』의 도시가 지닌 디스토피아적 양상에 주목하며 지유가 노아를 돕는 과정에서 도시 밖을 꿈꾸며, “지유도 노아처럼 자기를 가둔 세상을 박차고 나올 것임을 암시한다”(122쪽.)라고 보았다.

4. 결론: 타자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윤리적 글쓰기

우리 사회 청소년들과 타자적 존재들의 목소리가 “희미”한 것을 포착한 「B의 세상」과 『원통 안의 소녀』의 작가들은 타자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양상과 그들의 밀도를 그려내고, 우리 사회에 타자적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사유하였다. 권력주체가 전유하는 공간에서 타자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타자들의 밀도는 낮아지기에 양적인 타자, 즉 타자의 수는 곧 그 밀도가 되지 못한다. 타자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주체의 공간이 되어 주체의 권력으로 머물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의미 있는 공적 언어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주체의 공간에 타자성은 드러나기 힘들다. 두 작품은 타자적 청소년들이 권력의 공간에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어떠한 밀도로 존재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 청소년 인물들은 주체의 지식 속에서 해석되고, 그들의 타자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낮은 밀도로 점점 “희미”해져 가거나(「B의 세상」) 아예 격리된다(『원통 안의 소녀』). 희미해지는 것은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격리되는 것은 주체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일이다. 이에 「B의 세상」은 공적 발화를 시도하고, 공적인 말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타자들의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타자들의 밀도를 높여가고자 한다. 『원통 안의 소녀』는 “사권”을 통한 윤리적 주체되기를 통해 그들의 타자성이 세계에 나타날 수 있고 타자를 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소설에서 타자성의 드러남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소설은 성인작가가 청소년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세계의 진실에 닿아있는 언설(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타자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에 타자의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개자로서 이 세계의 공적 목소리를 소유한 성인작가의 시선과 ‘말’이 필요하다. 목소리 없는 타자가 권력주체의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포착하는 주체의 시선, 그리고 밀도 낮은 타자가 ‘있음’을 발견하는 주체의 시선과 그것을 전달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다. 더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글쓰기를 통해 통합되지 않는 타자의 말을 작가는 주체로서 대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타자를 향한 성인작가의 윤리에 닿아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작가는 권력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긍정적인 힘은 권력이 통솔하는 목소리를 통해 응성거림을 밝힌다”³³⁾는 것이다. 우리 세계 청소년 타자에 대해 성인작가주체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솔하여 그림자 없이 명확한, 더 이상 응성거림이 아닌 공적인 말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작품을 쓰는 행위를 통해 “뭉여지지 않거나 매개 중재되지 않”는 타자의 목소리가 “응성거림”³⁴⁾에 그치지 않도록 그들의 ‘말’을 대신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타자들을 마주한 성인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윤리적 주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소중한 이유이다.

33) 한병철, 앞의 책, 8쪽.

34) 위의 책, 7쪽.

참고문헌

- 김초엽, 『원통 안의 소녀』, 창비, 2019.
- 최상희, 「B의 세상」, 『B의 세상』, 문학동네, 2019.
- 박유정, 「사랑이란?-바타이유와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0권 6호(통권 56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559-578쪽.
- 최배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 청소년 과학소설의 디스토피아 연구」, 『대중서사연구』53, 대중서사학회, 2020, 103-132쪽.
- 한병철, 김남시 역,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성사, 2011.
- 엠마누엘 레비나스,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Abstract>

Density of the Other and the Way to Resist in the World

- Focused on youth novels 『The Girl in the Cylinder』
and 『B's World』

Park, Seong-Ae*

In the space dominated by the subject of power, the space of the Others becomes narrower and the density of the others decreases. Because the Others become the space of the subject of power voluntarily, otherness can not reveal in that space.

『B's World』 and 『The Girl in the Cylinder』 show the youth's mass, density, and way of being in the space of power. Youth characters can not reveal their otherness in the texts, because they are interpreted as the subject's knowledge. Accordingly, youth's character of 『B's World』 tries to increase their density by attempting public utterances, and pursuing solidarity with the Others. 『The Girl in the Cylinder』 says that their otherness can appear in this world and they can dream of a future for the Others through becoming an ethical subject through friendship. The youth novel should be a literature that touches the truth of the youth's world because adult writers deliver texts to the youth reader. Because the youth are the Other in our society and their voices are hard to hear, so in order to reveal the Other's words, we need the eyes and words of the adult

* University of Seoul.

writer who possesses the public voice of this world as an intermediary. The gaze of the subject that captures how the Other exists in the space of the subject of power and the words to convey it are necessary. The writer should be able to speak instead of the Other's words that are not integrated through writing. For this, adult writ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sitive aspects of power. Power can unite the voices of the Others to become a public word communicated in our society. Adult writers should integrate the youth's voices and make it clear in this our world. This can be the way for adult writers to become an ethical subject through writing and facing the Others in our society.

Key Words: Youth Novel, Power, Subject of Power, The Other,
Density, Relationship, Ethical Subject

■ 논문접수 : 2021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3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7일

